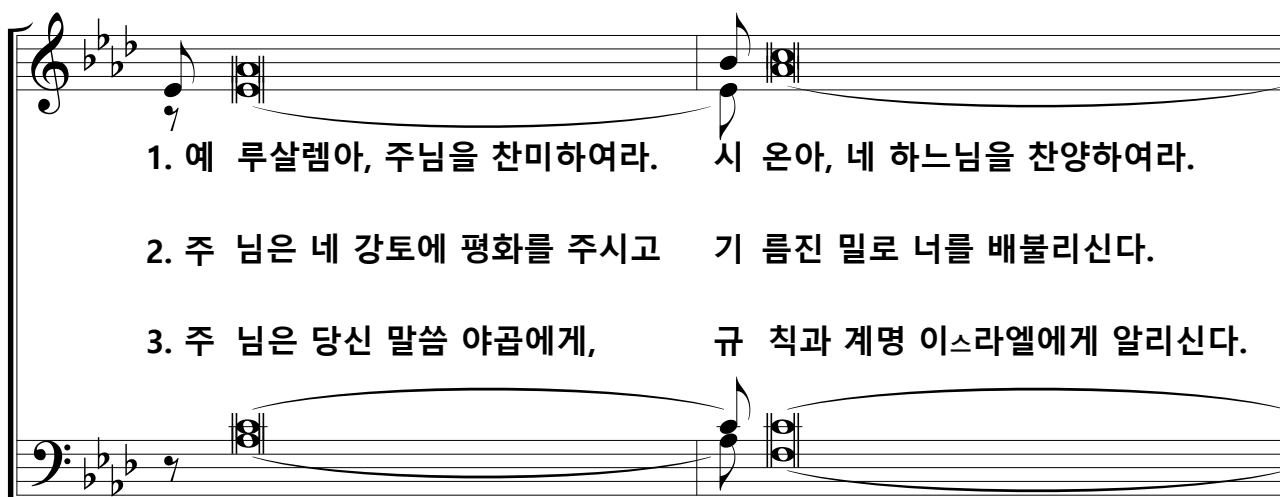


지극히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성체성혈 대축일 화답송 가해

시 편 147(146-147), 12-13. 14-15. 19-20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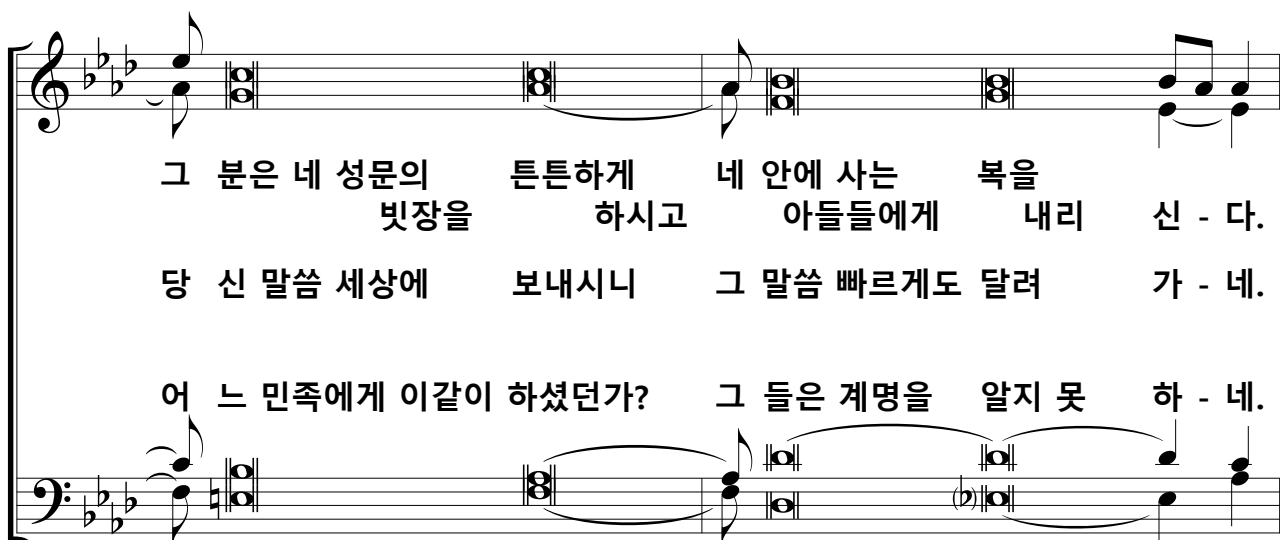
(후렴) 예루살렘아, 예루살렘아, 주님을 찬미하여라.



1. 예루살렘아, 주님을 찬미하여라. 시온아, 네 하느님을 찬양하여라.

2. 주님은 네 강토에 평화를 주시고 기쁨진 밀로 너를 배불리신다.

3. 주님은 당신 말씀 야곱에게, 규칙과 계명 이스라엘에게 알리신다.



그분은 네 성문의 튼튼하게 네 안에 사는 복을
빛장을 하시고 아들들에게 내리 신 - 다.

당신 말씀 세상에 보내시니 그 말씀 빠르게도 달려 가 - 네.

어느 민족에게 이같이 하셨던가? 그 들은 계명을 알지 못 하 - 네.

지극히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성체성혈 대축일 알렐루야 가해

알 렐 루 - 야 알 렐 루 - 야

The first system of the musical score is written for a piano accompaniment in 3/4 time, key of D major. It consists of two staves. The treble staff begins with a treble clef, a key signature of one sharp (F#), and a 3/4 time signature. The melody is composed of eighth and quarter notes, with some measures containing chords. The bass staff begins with a bass clef, a key signature of one sharp (F#), and a 3/4 time signature. The bass line is primarily composed of quarter and eighth notes, providing a harmonic foundation for the treble part. The lyrics '알 렐 루 - 야 알 렐 루 - 야' are written below the staves, aligned with the musical notes.

주님이 말씀하신다. 나는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살 리 라.
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있는 빵 이 다.

The second system of the musical score continues the piano accompaniment. It also consists of two staves in the same key and time signature. The treble staff features a more complex melody with some sixteenth notes and rests. The bass staff continues with a steady accompaniment. The lyrics are written in two lines: '주님이 말씀하신다. 나는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살 리 라.' and '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있는 빵 이 다.' The music concludes with a double bar line.